

한국학연구부문을 개소하면서

한국학연구부문장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 입니다. 저는 2015년 3월까지 대학원 정보학 환현대한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2010 년도에 강상중교수를 초대 센터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저도 코마바 캠퍼스의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유동, 즉 출향이라는 형태로 정보학환과 관계를 가지고 부센터장으로 센터의 운영에 관여하고, 강센터장이 세이가쿠인대학(聖学院大学) 학장 취임을 위해 퇴직한 후 센터장으로 2년에 걸쳐 센터의 운영에 책임을 저였습니다. 저 자신은 2015년 4월부터 다시 원래의 코마바 캠퍼스의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로 복귀를 하고 여기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학연구부문이라는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도쿄대학을 해외 한국학 중핵 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에 관여하여 연구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한국 연구자를 육성하는 교육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대한국연구센터는 앞으로 대학원의 정보학환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살린 한국연구, 한일 학술 교류를 실시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코마바의 한국학연구부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동 센터가 행해 온 넓은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한국 연구를 계승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쿄대학에 한국의 이름이 붙는 연구 기관이 두 개가 생긴 것은, 한국 연구에 대한 도쿄대학의 크고 강한 의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혼고 현대한국연구센터와 코마바의 한국학연구부문이 도쿄대학의, 그리고 일본의 한국 연구를 수레의 양 바퀴로서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절차탁마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 양자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한일 관계는 솔직히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탈냉전 시대의 한일 관계의 구조 변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변용이 필연적으로 한일 관계의 갈등의 증대만으로 귀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갈등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능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일 관계를 구성하는 담당자가 그러한 "능력"을 획득하고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한국학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가 한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에 적지 않은 공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기대를 담아 일본의 한국학 연구 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